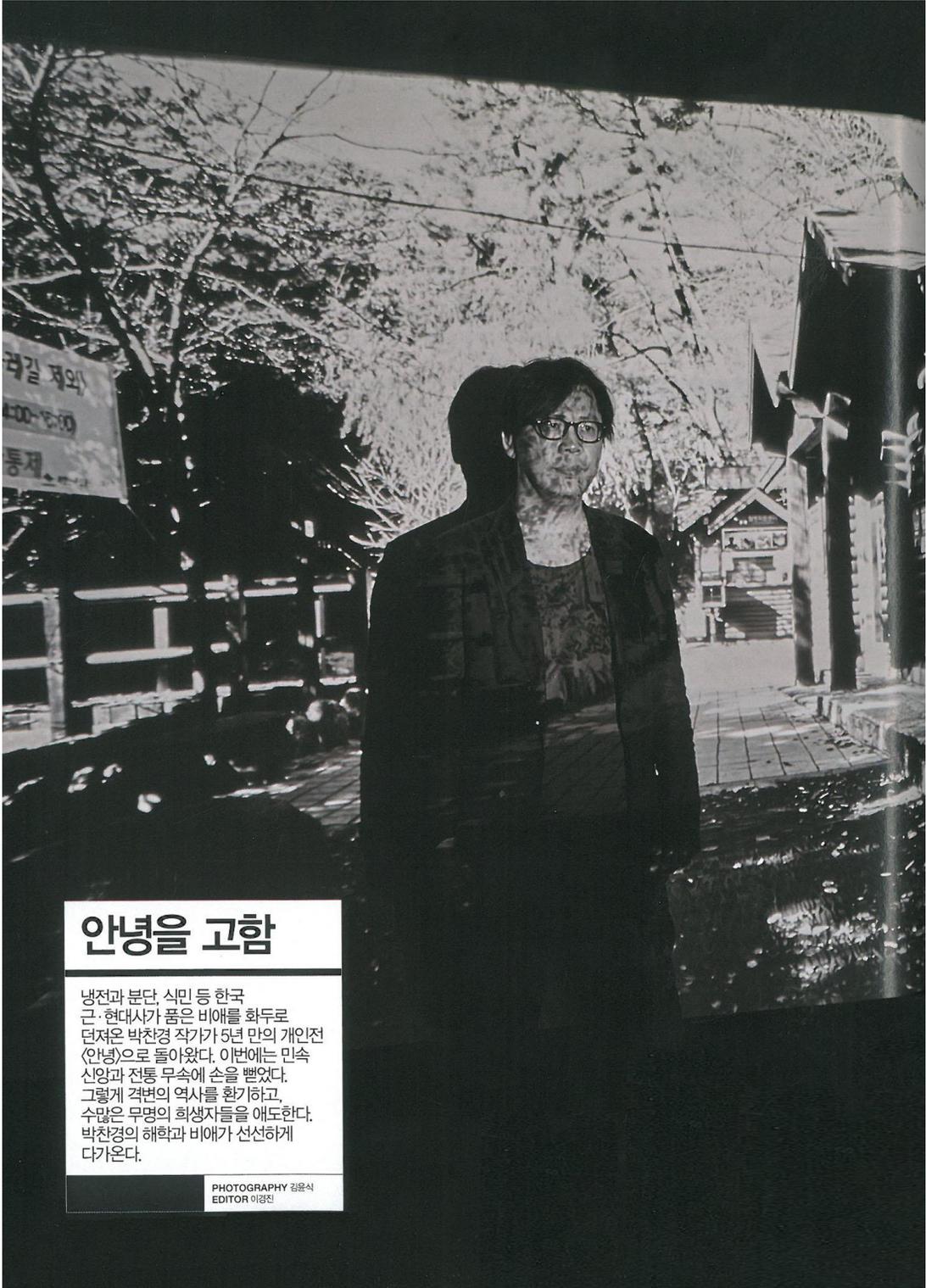


안녕을 고함

July, 2017 | 이경진 에디터

page 1 of 4



안녕을 고함

냉전과 분단, 식민 등 한국 근·현대사가 품은 비애를 화두로 던져온 박찬경 작가가 5년 만의 개인전 〈안녕〉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민속 신앙과 전통 무속에 손을 뻗었다. 그렇게 격변의 역사를 환기하고, 수많은 무명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박찬경의 해학과 비애가 선선하게 다가온다.

PHOTOGRAPHY 김윤식
EDITOR 이경진

INTERVIEW

박 찬경이 작품에 표현하는 방대한 양의 인문학적, 예술학적 사실들을 보고 싶다면 **공급해진다. 저널리즘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뜯어보는 일이 당신의 취미인 것은 아닐까.**
 사실 진짜 취미 생활은 사진이다.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왔다. 거의 매일 가지고 다닌다. 오늘은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보디만 디지털카메라고 렌즈는 필름 카메라에 쓰던 거다. 보디는 라이카 M 모노크롬이다. 렌즈는 1950년대에 만든 것이다.
보디와 렌즈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어울린다. 멋있지 않나? 사실 내 물건은 아니고, 형(박찬욱 감독)에게서 잠깐 빌렸다. 아까 저널리즘적인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취미나 물었는데, 신문 같은 걸 읽을 때면 사진을 유심히 보는 편이다. 사진집 보기도 좋아한다. 사실 나 자신도 사진을 왜 특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재미있는 매체인 것 같다.
사진으로 역사 공부 마치지 않았나? 그것 역시 이유 모를 호감 때문이었나?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런 사진 공부가 목적이라기보다 그 학과의 선생님을 좋아했다.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거든. 그의 작업이 너무 좋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좋아서 그런 선생에게서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다.
사진은 언제부터 찍기 시작했나?
 대학 다닐 때부터다. 그때 사진 참 좋아했다. 형이 사진반이어서,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다.
그때는 필름 쓰는 게 좋았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만날 일상적인 풍경이 재료다. 같이 노는 친구들 사진도 많이 찍었다. 멋있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약간 외진 곳, 외진 풍경을 주로 담았다. 어느 식당에 들어섰다고 치면, 문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 말고 화장실을 찍는 다든지. 보통은 어떤 구석을 찍었던 것 같다. 외진 곳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 전시에 '승가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다. 절에 오르는 산길을 촬영해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전개했다. 산을 오르다 보이는 전경을, 매점 앞의 파인 땅을 찍은 장면들이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땀겨 사진은 거의 없었다. 낯설더라. 이미 너무도 익숙한 풍경을 조금 비틀었을 뿐인데, 생경하기만 했다. 보통의 사진가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지 않나. 어떤 확실적인 혹은 보편적인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흥미를 느낀다. 나도 그런 것 같다.
5년 만의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은 역시 26분가량의 영상으로 완성된 '시민의 숲'이다.

김수영의 시 '거대한 뿌리'에서 착안했다. 비극적인 현대사를 거치며 희생된 무명의 이들을 위한 에도의 장을 벌였다. 3채널 비디오가 꼬리를 물듯 이어진다. 2017년 6월에 개인전으로 선보였지만 실은 2016년에 완성된 필름 아닌가. 오프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 "전시를 열 때,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시민의 숲은 김수영의 시 '거대한 뿌리'와 오윤의 그림 '원귀도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완성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선,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다는 생각부터 한 것이 사실이다. 정권 교체가 안 되었다면 관객은 아무래도 이 작품을 보며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테지. 분위기도 침울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갤러리를 오가며 살펴니, 작품을 보고 나오는 관객의 얼굴이 다 밝다. 무겁게 보지 않고,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작품이 된 거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정황과 작품이 너무 밀착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필터가 작품에 걸 테니까, 작품을 있는 그대로, 선선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의외 좋다.
박찬경의 작품 앞에선 대개 두 가지 감정이 중첩된다. 분명 익숙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도 낯설다. 이번 전시를 보면서는 그러한 이중적 감정이 증폭되더라. 이전에는 민중이 지나온 역사적 질곡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문제를 민중 신앙과 전통 무속을 통해 드러냈다. 전통적인 신앙과 무속이라는 재료가 익숙하고도 낯선, 이중적 감정을 끌어내는 것 같았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는 결코 높지 않다. 누군가는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우리의 근대성 안에 그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 근대성이 지닌 정신적인 문제가 깊다고 봤다. 한국 사회는 전통문화와 거의 단절되어 있다. 지금의 문화가 전통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면서, 생활의 양식이나 틀이 확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활하고 무리 없는 적응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기준이 다 무너졌다. 공동체 안에 특이하게 뿌리 내린 삶의 양식이 소멸된 사회에는, 공동체적 윤리가 절대 생성될 수 없다고 본다. 물리적 빈곤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신적인 소외감을 다스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종교, 신앙이나 믿음의 변화가 근대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해서 전통문화와 단절되었는지에 관심이 생겼다.
 언급했다시피 그 단절은 오랜 세월

진행되어왔다. 현재 대중은 그러한 주제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고민이 없었나?
 있었지. 갤러리 전시니까 작품이 팔려야 하는데, 이런 건 무서워서 잘 안 살 테니까. 하하,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 편견 아닌가? 예술이란 그 편견에서 좀 자유로워지자는 선언이지 않나. 편견을 없애자고 말하려는 게 예술인데, 그래도 없어질 리 없다는 결론을 내고 시작해서야 되겠나.

"갤러리 전시니까 작품이 팔려야 하는데, 이런 건 무서워서 잘 안 살 테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 편견 아닌가? 예술이란 그 편견에서 좀 자유로워지자는 선언이지 않나. 편견을 없애자고 말하려는 게 예술인데, 그래도 없어질 리 없다는 결론을 내고 시작해서야 되겠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이후, 박찬경이 보낸 시간이 '시민의 숲을 만들었다. 그 당시 혹은 그 이후,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분노하며 다양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했나?
 아마 나쁜 아니라 모두가 그랬을 거다. 세월호 침몰 이후 생겨난 여러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함께 깨달은 건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의 말도 이해하는 쪽이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나는 내 일을 성실히,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분노한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는 이들을 욕했다. 그런데 나는 침묵하는 사람들을 이해했다. 나도 처음에는 어떤 말도 못하겠더라고.
그렇다면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꽤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을 것 같다.
 그랬지만 뭐 나만 힘들었다. 모두 마찬가지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실 그 일 이후로 그와 관련된 문화적 산물이 많았어야 했지만, 그다지 빨리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겠지. 비판하는 일이야 얼마나 쉬운가. 이번 전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작은 미술사'다. 박찬경이 새로 접붙인 미술사의 면면이 흥미롭고 탁월했다. 예전에 선보였던 '파워 톨로'가 생각나기도 했다. 박찬경이 특유의 '거리 두기'를 통해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고리를 찾아낼 때, 특히 재미있는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다.
 이전의 작품을 대부분이 거리를 좀 두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거리 두고 본 작품이 '작은 미술사' 말고는 없다. 굉장히 감상적이다.

INTERVIEW

이번 전시가 이전의 전시들과 다른 점이다. 정치적 해야 할 땐 멀리서 보고, 전통 무속을 다룰 땐 가까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무속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있다. 간혹 스스로도 좀 놀라는 그런 애착이다.

어떤 이유로 전통 무속과 민속 신앙에 골몰하게 됐나?

1980년대 김수환 선생님이나 김홍희 선생님처럼 무속을 탐구하고 말하던 학자들이 없었으면 나는 이런 것 못했을 거다. 대단한 분들이다. 20대, 30대에 전국을 누비며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귀을 좋아했는지 영향을 보면 이해된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따라다니는 게 별로라고 생각했다. 현대적이지 않으니까, '옛날 거 좋지, 좋은 거 누가 모른다?'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현대적인 것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 과거의 것에서 힘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생겼다.

한국 현대사를 다루고 민속 신앙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 관객의 생각에는 그저 박찬경이 선택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작가 본인에게는 불가피한 혹은 숙명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 나는 작가가 어떤 고유한 세계, 작가만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런 이야기 믿지 않는다. 모두가 어디선가 주워들고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디에도 뿌리를 두지 않은 자신만의 독특한 것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물론 작가에게는 저마다 특색이 있다. 소스를 가공하는 방식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그런 너무 일반적인 일이지 않나? '이 작가만의 고유한 어떤 세계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한다. 당연히 고유하지, 그럼 고유하지 않은가? 그럼 작가에게 중요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해석의 방식, 어떤 식으로 종합하고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 역시 그렇게 의미 있는 말 같지는 않다. 어떤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라는 게 정말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다. 모든 작가들이 다들 여기저기서 들은 걸로 작업한다. 무속이나 민속 신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을 스스로 좀 의심했다. 결국에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세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보편적인 세계라고 느꼈다. 그저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무속과 민속 신앙은 결국 신에 대한 두려움과 복을 비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종교의 가장 보편적인 정신 아닌가. 서구 미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고 또 하나는 숭고에 관한 학문이다. 그 숭고가 모두 종교와 관련이 있다. 미학적 관점에서 숭고미는 아주 보편적이고 오래된 것이다. 무속을 너무 특수한 문화로 보는 것은 문제다. 현대의 무속 문화가 미신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무속 문화 자체가 미신 문화라는 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편견이다. 사실 예술가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보편적이다. 백남준은 작가가 무당이라고 생각하고 굶도 했었다. 화가 박승준은 아예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들 아닌가.

“무속을 특수한 문화로 보는 것은 문제다. 현대의 무속 문화가 미신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무속 문화 자체가 미신 문화라는 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편견이다. 사실 예술가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보편적이다. 백남준은 작가가 무당이라고 생각하고 굶도 했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한국의 창작 환경에 대해 조금 독특한 견해를 밝힌 기억이 난다. 재능 있는 예술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라고 했었다.

한국의 창작 환경은 물론 어렵다. 미술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고정관념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미술과 관련한 제도는 양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다른 아시아 도시에 비하면 말이다. 생활인으로서 보자면 한국 사회는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만큼 예술가에게는 변화무쌍하고 무궁무진한 소재가 즐비한 곳이다. 나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를 것들을 유심히 보는 편이다. 한국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재도 참 많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예술가가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작가에게는 이런 나라가 또 없다. 성공한 한국 영화는 한국 사회가 가진 복잡한 사회 문화적 양상을 잘 녹인 경우가 많다. 아마 내게 유럽에 가서 레지던시 같은 걸 하려면, 엄청난 공포심에 휩싸일 거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소재로 작업한다는 건 내게 그런 의미다.

얼마 전, 까르미에 현대미술재단의 전시 <하이라이트>가 개막했다. 그 전시에도 재단의 커미션을 받고 형인 박찬욱과 함께

‘짜깁찬스러운 이름으로 참여했다. 며칠 뒤에는 아트 바젤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로 간다고 들었다.

이제 웬일이냐 싶다. 솔직히 나는 전시에 많이 초대되던 작가가 아니다. 작품도 많지 않고, 일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영화도 했다가 큐레이팅도 했다가... 이렇게 작가적인 활동과 이벤트가 물린 것은 내게도 특이한 경우가. **작가 박찬경에 대한 반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게다가 이번 개인전은 갤러리에서 어느 전시인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상당수 들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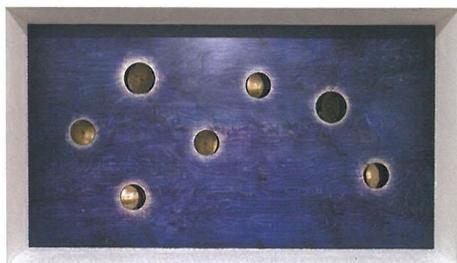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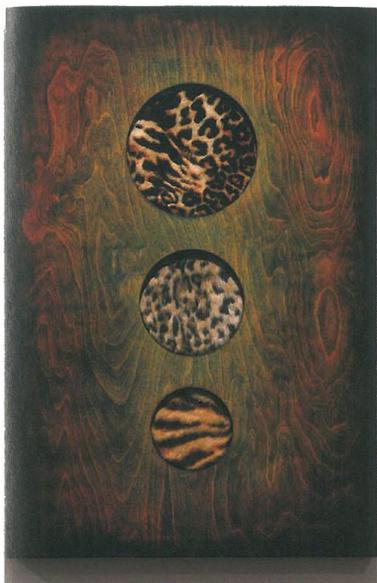
보통 미술 전시를 하면 반응이 별로 없다. 그게 일반적이다. 관객도 별로 안 든다. 그런데 미술이라는 매체 자체가 원래 그렇다. 절대 다수의 대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껏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관객의 반응이 좀 있는 것 같다. 나 자신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정말 반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SNS가 발달해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다. 5년 만의 개인전인데, 5년 전에는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번 전시에 반응이 좀 있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술과 SNS의 관계도 연구해볼 만한 것 같다. 영화나 음악 같은 것은 SNS와 잘 맞는 다. 보거나 듣고 나면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연기가 이상하다, 음악이 이상하다, 감동받았다는 등의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영화나 음악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감상의 표현이 가능한 매체인 반면, 미술은 아무래도 감상을 빨리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뜻인가?

그래서 미술 감상과 SNS가 잘 어울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미술 작품의 소비가 SNS에서 이뤄지는 게 적절하냐는 말은 아니다. 하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작가 입장에서는 깊이 있는 리뷰 같은 것을 더 기대하게 되니까. **지금도 청운동 작업실을 쓰나? 어느 기사에 묘사된 그곳의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4단짜리 책장으로 둘러친 공간이라 했는데,** 여전히 그 작업실을 쓴다. 책이 너무 많다. 대부분의 책을 책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다. 작업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빈 벽인데, 지금 비어 있는 벽이 거의 없다. **뭔가를 쉽게 못 버리는 성격인가 보다.** 뭐든 잘 못 버린다. 특히 책으로 둘러친 풍경은 나에게 너무 익숙해 더 그런 것 같다. 아버지도 책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 형도 책을 좋아했고, 형이 가진 책에 비하면 나는 반도 안 될 거다.

1. 1번은 100x100cm, 2번은 100x100cm, 3번은 100x100cm, 4번은 100x100cm, 5번은 100x100cm, 6번은 100x100cm, 7번은 100x100cm, 8번은 100x100cm, 9번은 100x100cm, 10번은 100x100cm, 11번은 100x100cm, 12번은 100x100cm, 13번은 100x100cm, 14번은 100x100cm, 15번은 100x100cm, 16번은 100x100cm, 17번은 100x100cm, 18번은 100x100cm, 19번은 100x100cm, 20번은 100x100cm, 21번은 100x100cm, 22번은 100x100cm, 23번은 100x100cm, 24번은 100x100cm, 25번은 100x100cm, 26번은 100x100cm, 27번은 100x100cm, 28번은 100x100cm, 29번은 100x100cm, 30번은 100x100cm, 31번은 100x100cm, 32번은 100x100cm, 33번은 100x100cm, 34번은 100x100cm, 35번은 100x100cm, 36번은 100x100cm, 37번은 100x100cm, 38번은 100x100cm, 39번은 100x100cm, 40번은 100x100cm, 41번은 100x100cm, 42번은 100x100cm, 43번은 100x100cm, 44번은 100x100cm, 45번은 100x100cm, 46번은 100x100cm, 47번은 100x100cm, 48번은 100x100cm, 49번은 100x100cm, 50번은 100x100cm, 51번은 100x100cm, 52번은 100x100cm, 53번은 100x100cm, 54번은 100x100cm, 55번은 100x100cm, 56번은 100x100cm, 57번은 100x100cm, 58번은 100x100cm, 59번은 100x100cm, 60번은 100x100cm, 61번은 100x100cm, 62번은 100x100cm, 63번은 100x100cm, 64번은 100x100cm, 65번은 100x100cm, 66번은 100x100cm, 67번은 100x100cm, 68번은 100x100cm, 69번은 100x100cm, 70번은 100x100cm, 71번은 100x100cm, 72번은 100x100cm, 73번은 100x100cm, 74번은 100x100cm, 75번은 100x100cm, 76번은 100x100cm, 77번은 100x100cm, 78번은 100x100cm, 79번은 100x100cm, 80번은 100x100cm, 81번은 100x100cm, 82번은 100x100cm, 83번은 100x100cm, 84번은 100x100cm, 85번은 100x100cm, 86번은 100x100cm, 87번은 100x100cm, 88번은 100x100cm, 89번은 100x100cm, 90번은 100x100cm, 91번은 100x100cm, 92번은 100x100cm, 93번은 100x100cm, 94번은 100x100cm, 95번은 100x100cm, 96번은 100x100cm, 97번은 100x100cm, 98번은 100x100cm, 99번은 100x100cm, 100번은 100x100cm, 101번은 100x100cm, 102번은 100x100cm, 103번은 100x100cm, 104번은 100x100cm, 105번은 100x100cm, 106번은 100x100cm, 107번은 100x100cm, 108번은 100x100cm, 109번은 100x100cm, 110번은 100x100cm, 111번은 100x100cm, 112번은 100x100cm, 113번은 100x100cm, 114번은 100x100cm, 115번은 100x100cm, 116번은 100x100cm, 117번은 100x100cm, 118번은 100x100cm, 119번은 100x100cm, 120번은 100x100cm, 121번은 100x100cm, 122번은 100x100cm, 123번은 100x100cm, 124번은 100x100cm, 125번은 100x100cm, 126번은 100x100cm, 127번은 100x100cm, 128번은 100x100cm, 129번은 100x100cm, 130번은 100x100cm, 131번은 100x100cm, 132번은 100x100cm, 133번은 100x100cm, 134번은 100x100cm, 135번은 100x100cm, 136번은 100x100cm, 137번은 100x100cm, 138번은 100x100cm, 139번은 100x100cm, 140번은 100x100cm, 141번은 100x100cm, 142번은 100x100cm, 143번은 100x100cm, 144번은 100x100cm, 145번은 100x100cm, 146번은 100x100cm, 147번은 100x100cm, 148번은 100x100cm, 149번은 100x100cm, 150번은 100x100cm, 151번은 100x100cm, 152번은 100x100cm, 153번은 100x100cm, 154번은 100x100cm, 155번은 100x100cm, 156번은 100x100cm, 157번은 100x100cm, 158번은 100x100cm, 159번은 100x100cm, 160번은 100x100cm, 161번은 100x100cm, 162번은 100x100cm, 163번은 100x100cm, 164번은 100x100cm, 165번은 100x100cm, 166번은 100x100cm, 167번은 100x100cm, 168번은 100x100cm, 169번은 100x100cm, 170번은 100x100cm, 171번은 100x100cm, 172번은 100x100cm, 173번은 100x100cm, 174번은 100x100cm, 175번은 100x100cm, 176번은 100x100cm, 177번은 100x100cm, 178번은 100x100cm, 179번은 100x100cm, 180번은 100x100cm, 181번은 100x100cm, 182번은 100x100cm, 183번은 100x100cm, 184번은 100x100cm, 185번은 100x100cm, 186번은 100x100cm, 187번은 100x100cm, 188번은 100x100cm, 189번은 100x100cm, 190번은 100x100cm, 191번은 100x100cm, 192번은 100x100cm, 193번은 100x100cm, 194번은 100x100cm, 195번은 100x100cm, 196번은 100x100cm, 197번은 100x100cm, 198번은 100x100cm, 199번은 100x100cm, 200번은 100x100cm, 201번은 100x100cm, 202번은 100x100cm, 203번은 100x100cm, 204번은 100x100cm, 205번은 100x100cm, 206번은 100x100cm, 207번은 100x100cm, 208번은 100x100cm, 209번은 100x100cm, 210번은 100x100cm, 211번은 100x100cm, 212번은 100x100cm, 213번은 100x100cm, 214번은 100x100cm, 215번은 100x100cm, 216번은 100x100cm, 217번은 100x100cm, 218번은 100x100cm, 219번은 100x100cm, 220번은 100x100cm, 221번은 100x100cm, 222번은 100x100cm, 223번은 100x100cm, 224번은 100x100cm, 225번은 100x100cm, 226번은 100x100cm, 227번은 100x100cm, 228번은 100x100cm, 229번은 100x100cm, 230번은 100x100cm, 231번은 100x100cm, 232번은 100x100cm, 233번은 100x100cm, 234번은 100x100cm, 235번은 100x100cm, 236번은 100x100cm, 237번은 100x100cm, 238번은 100x100cm, 239번은 100x100cm, 240번은 100x100cm, 241번은 100x100cm, 242번은 100x100cm, 243번은 100x100cm, 244번은 100x100cm, 245번은 100x100cm, 246번은 100x100cm, 247번은 100x100cm, 248번은 100x100cm, 249번은 100x100cm, 250번은 100x100cm, 251번은 100x100cm, 252번은 100x100cm, 253번은 100x100cm, 254번은 100x100cm, 255번은 100x100cm, 256번은 100x100cm, 257번은 100x100cm, 258번은 100x100cm, 259번은 100x100cm, 260번은 100x100cm, 261번은 100x100cm, 262번은 100x100cm, 263번은 100x100cm, 264번은 100x100cm, 265번은 100x100cm, 266번은 100x100cm, 267번은 100x100cm, 268번은 100x100cm, 269번은 100x100cm, 270번은 100x100cm, 271번은 100x100cm, 272번은 100x100cm, 273번은 100x100cm, 274번은 100x100cm, 275번은 100x100cm, 276번은 100x100cm, 277번은 100x100cm, 278번은 100x100cm, 279번은 100x100cm, 280번은 100x100cm, 281번은 100x100cm, 282번은 100x100cm, 283번은 100x100cm, 284번은 100x100cm, 285번은 100x100cm, 286번은 100x100cm, 287번은 100x100cm, 288번은 100x100cm, 289번은 100x100cm, 290번은 100x100cm, 291번은 100x100cm, 292번은 100x100cm, 293번은 100x100cm, 294번은 100x100cm, 295번은 100x100cm, 296번은 100x100cm, 297번은 100x100cm, 298번은 100x100cm, 299번은 100x100cm, 300번은 100x100cm, 301번은 100x100cm, 302번은 100x100cm, 303번은 100x100cm, 304번은 100x100cm, 305번은 100x100cm, 306번은 100x100cm, 307번은 100x100cm, 308번은 100x100cm, 309번은 100x100cm, 310번은 100x100cm, 311번은 100x100cm, 312번은 100x100cm, 313번은 100x100cm, 314번은 100x100cm, 315번은 100x100cm, 316번은 100x100cm, 317번은 100x100cm, 318번은 100x100cm, 319번은 100x100cm, 320번은 100x100cm, 321번은 100x100cm, 322번은 100x100cm, 323번은 100x100cm, 324번은 100x100cm, 325번은 100x100cm, 326번은 100x100cm, 327번은 100x100cm, 328번은 100x100cm, 329번은 100x100cm, 330번은 100x100cm, 331번은 100x100cm, 332번은 100x100cm, 333번은 100x100cm, 334번은 100x100cm, 335번은 100x100cm, 336번은 100x100cm, 337번은 100x100cm, 338번은 100x100cm, 339번은 100x100cm, 340번은 100x100cm, 341번은 100x100cm, 342번은 100x100cm, 343번은 100x100cm, 344번은 100x100cm, 345번은 100x100cm, 346번은 100x100cm, 347번은 100x100cm, 348번은 100x100cm, 349번은 100x100cm, 350번은 100x100cm, 351번은 100x100cm, 352번은 100x100cm, 353번은 100x100cm, 354번은 100x100cm, 355번은 100x100cm, 356번은 100x100cm, 357번은 100x100cm, 358번은 100x100cm, 359번은 100x100cm, 360번은 100x100cm, 361번은 100x100cm, 362번은 100x100cm, 363번은 100x100cm, 364번은 100x100cm, 365번은 100x100cm, 366번은 100x100cm, 367번은 100x100cm, 368번은 100x100cm, 369번은 100x100cm, 370번은 100x100cm, 371번은 100x100cm, 372번은 100x100cm, 373번은 100x100cm, 374번은 100x100cm, 375번은 100x100cm, 376번은 100x100cm, 377번은 100x100cm, 378번은 100x100cm, 379번은 100x100cm, 380번은 100x100cm, 381번은 100x100cm, 382번은 100x100cm, 383번은 100x100cm, 384번은 100x100cm, 385번은 100x100cm, 386번은 100x100cm, 387번은 100x100cm, 388번은 100x100cm, 389번은 100x100cm, 390번은 100x100cm, 391번은 100x100cm, 392번은 100x100cm, 393번은 100x100cm, 394번은 100x100cm, 395번은 100x100cm, 396번은 100x100cm, 397번은 100x100cm, 398번은 100x100cm, 399번은 100x100cm, 400번은 100x100cm, 401번은 100x100cm, 402번은 100x100cm, 403번은 100x100cm, 404번은 100x100cm, 405번은 100x100cm, 406번은 100x100cm, 407번은 100x100cm, 408번은 100x100cm, 409번은 100x100cm, 410번은 100x100cm, 411번은 100x100cm, 412번은 100x100cm, 413번은 100x100cm, 414번은 100x100cm, 415번은 100x100cm, 416번은 100x100cm, 417번은 100x100cm, 418번은 100x100cm, 419번은 100x100cm, 420번은 100x100cm, 421번은 100x100cm, 422번은 100x100cm, 423번은 100x100cm, 424번은 100x100cm, 425번은 100x100cm, 426번은 100x100cm, 427번은 100x100cm, 428번은 100x100cm, 429번은 100x100cm, 430번은 100x100cm, 431번은 100x100cm, 432번은 100x100cm, 433번은 100x100cm, 434번은 100x100cm, 435번은 100x100cm, 436번은 100x100cm, 437번은 100x100cm, 438번은 100x100cm, 439번은 100x100cm, 440번은 100x100cm, 441번은 100x100cm, 442번은 100x100cm, 443번은 100x100cm, 444번은 100x100cm, 445번은 100x100cm, 446번은 100x100cm, 447번은 100x100cm, 448번은 100x100cm, 449번은 100x100cm, 450번은 100x100cm, 451번은 100x100cm, 452번은 100x100cm, 453번은 100x100cm, 454번은 100x100cm, 455번은 100x100cm, 456번은 100x100cm, 457번은 100x100cm, 458번은 100x100cm, 459번은 100x100cm, 460번은 100x100cm, 461번은 100x100cm, 462번은 100x100cm, 463번은 100x100cm, 464번은 100x100cm, 465번은 100x100cm, 466번은 100x100cm, 467번은 100x100cm, 468번은 100x100cm, 469번은 100x100cm, 470번은 100x100cm, 471번은 100x100cm, 472번은 100x100cm, 473번은 100x100cm, 474번은 100x100cm, 475번은 100x100cm, 476번은 100x100cm, 477번은 100x100cm, 478번은 100x100cm, 479번은 100x100cm, 480번은 100x100cm, 481번은 100x100cm, 482번은 100x100cm, 483번은 100x100cm, 484번은 100x100cm, 485번은 100x100cm, 486번은 100x100cm, 487번은 100x100cm, 488번은 100x100cm, 489번은 100x100cm, 490번은 100x100cm, 491번은 100x100cm, 492번은 100x100cm, 493번은 100x100cm, 494번은 100x100cm, 495번은 100x100cm, 496번은 100x100cm, 497번은 100x100cm, 498번은 100x100cm, 499번은 100x100cm, 500번은 100x100cm, 501번은 100x100cm, 502번은 100x100cm, 503번은 100x100cm, 504번은 100x100cm, 505번은 100x100cm, 506번은 100x100cm, 507번은 100x100cm, 508번은 100x100cm, 509번은 100x100cm, 510번은 100x100cm, 511번은 100x100cm, 512번은 100x100cm, 513번은 100x100cm, 514번은 100x100cm, 515번은 100x100cm, 516번은 100x100cm, 517번은 100x100cm, 518번은 100x100cm, 519번은 100x100cm, 520번은 100x100cm, 521번은 100x100cm, 522번은 100x100cm, 523번은 100x100cm, 524번은 100x100cm, 525번은 100x100cm, 526번은 100x100cm, 527번은 100x100cm, 528번은 100x100cm, 529번은 100x100cm, 530번은 100x100cm, 531번은 100x100cm, 532번은 100x100cm, 533번은 100x100cm, 534번은 100x100cm, 535번은 100x100cm, 536번은 100x100cm, 537번은 100x100cm, 538번은 100x100cm, 539번은 100x100cm, 540번은 100x100cm, 541번은 100x100cm, 542번은 100x100cm, 543번은 100x100cm, 544번은 100x100cm, 545번은 100x100cm, 546번은 100x100cm, 547번은 100x100cm, 548번은 100x100cm, 549번은 100x100cm, 550번은 100x100cm, 551번은 100x100cm, 552번은 100x100cm, 553번은 100x100cm, 554번은 100x100cm, 555번은 100x100cm, 556번은 100x100cm, 557번은 100x100cm, 558번은 100x100cm, 559번은 100x100cm, 560번은 100x100cm, 561번은 100x100cm, 562번은 100x100cm, 563번은 100x100cm, 564번은 100x100cm, 565번은 100x100cm, 566번은 100x100cm, 567번은 100x100cm, 568번은 100x100cm, 569번은 100x100cm, 570번은 100x100cm, 571번은 100x100cm, 572번은 100x100cm, 573번은 100x100cm, 574번은 100x100cm, 575번은 100x100cm, 576번은 100x100cm, 577번은 100x100cm, 578번은 100x100cm, 579번은 100x100cm, 580번은 100x100cm, 581번은 100x100cm, 582번은 100x100cm, 583번은 100x100cm, 584번은 100x100cm, 585번은 100x100cm, 586번은 100x100cm, 587번은 100x100cm, 588번은 100x100cm, 589번은 100x100cm, 590번은 100x100cm, 591번은 100x100cm, 592번은 100x100cm, 593번은 100x100cm, 594번은 100x100cm, 595번은 100x100cm, 596번은 100x100cm, 597번은 100x100cm, 598번은 100x100cm, 599번은 100x100cm, 600번은 100x100cm, 601번은 100x100cm, 602번은 100x100cm, 603번은 100x100cm, 604번은 100x100cm, 605번은 100x100cm, 606번은 100x100cm, 607번은 100x100cm, 608번은 100x100cm, 609번은 100x100cm, 610번은 100x100cm, 611번은 100x100cm, 612번은 100x100cm, 613번은 100x100cm, 614번은 100x100cm, 615번은 100x100cm, 616번은 100x100cm, 617번은 100x100cm, 618번은 100x100cm, 619번은 100x100cm, 620번은 100x100cm, 621번은 100x100cm, 622번은 100x100cm, 623번은 100x100cm, 624번은 100x100cm, 625번은 100x100cm, 626번은 100x100cm, 627번은 100x100cm, 628번은 100x100cm, 629번은 100x100cm, 630번은 100x100cm, 631번은

INTERVIEW



COLLEZIONE PERMANENTE - MUSEO D'ARTE MODERNA - ROMA